

디지털 토[通]



01/ NIA 뉴스

- 제8기 전자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경력자 전문과정 개설
- K-ICT NET 챌린지 캠프 시즌3, 교육세미나 개최를 통한 관심 고조
- 한국정보화진흥원, 르완다와 '스마트 아프리카' 추진
- 대구 이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년 신입사원 채용 및 사회공헌 활동 진행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년 빅데이터 시범 사업 착수
- '16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본격 착수
- 한국정보화진흥원, 다문화가정 방문해 3개월간 정보화 교육 실시
- 한국정보화진흥원, 농정원과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분야 업무협약 체결

03/ ICT 인사이드

-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 정보화 트렌드 보고서 국가정보화백서
- 상상을 현실로, 좋은 정부를 위한 ICT
-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으로 국민중심 서비스를

02/ ICT 보고서

- [BigData BiMonthly 제20호] Global Bigdata 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 전망 등
- [BigData BiMonthly 제21호] 2016 Top 10 Hot Bigdata Technologies 등
-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빅데이터 보안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호 현황 및 인식의 변화 분석
-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의도에 관한 연구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사용자를 중심으로
- 사물인터넷 신뢰 연구와 시사점: EU FP7을 중심으로
-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 전자정부 이슈매거진 : D.gov (2016-제5호)
- 전자정부 글로벌 뉴스레터 : D.gov Share (Vol.03 No.01)
- 전자정부 해외 동향분석 서비스 : D.gov Edge (2016-5월호)

04/ 포토앨범

- '16년도 신입직원 사회공헌 활동

05/ 6월 NIA 행사

06/ 디지털통 다시보기



NIA News

제8기 전자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경력자 전문과정 개설

우리원 글로벌아카데미에서 『제8기 전자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경력자 전문과정』을 개설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본 과정은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과 경험을 심화하여 개도국에 성공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전자정부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NIA 서울사무소(광화문)와 NIA 글로벌센터(제주)에서 진행됩니다.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과정은 전자정부 정책 및 서비스,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방법론 등의 내용을 학습하며 전자정부과정(7일), 국제개발협력과정(3일), 컨설팅과정(5일)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수강도 가능합니다. 또한, 7월 8일(금, 10:00~17:00) 진행되는 전자정부 수출 전략 워크숍은 일반에 공개되며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 가능합니다. 교육신청은 6월 15일(수)에 마감되며,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자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경력자 전문과정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글로벌 컨설턴트를 희망하시는 교육 과정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교육비 무료
(국비 지원)

- 신청자격 KCT/전자정부 수행 경험이 있는 경력자 및 전문가
- 교육내용 전자정부과정, 국제협력과정, IT컨설팅 과정
- 기간/장소 6월 27일(월) ~ 7월 15일(금), 서울(2주)/제주(1주)

과정유형	전자정부과정	국제협력과정	컨설팅과정
일정	6. 27 ~ 7. 5(7일)	7. 6 ~ 7. 8(3일)	7. 11 ~ 7. 15(5일)
장소	서울 (NIA 무교사무소)		제주 (NIA 글로벌센터)

- 모집인원 20 ~ 30여명
- 접수마감 6월 15일 18:00
- 기 타
 - 교육운영기간동안 중식(제주의 경우 조식, 석식) 제공
 - 제주 교육의 경우 숙박(제주 NIA 글로벌센터 연수동, 2인 1실 기준) 제공
- 문 의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 아카데미 과정 운영 담당자
(064-909-3034, egov.academy@nia.or.kr)

[신청하기](#)

 행정자치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News

K-ICT NET 챌린지 캠프 시즌3, 교육세미나 개최를 통한 관심 고조

우리원은 6월 3일 코엑스(COEX)에서 KOREN(미래네트워크 선도시험망)을 기반으로 한 ICT 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K-ICT NET(New Entrepreneur Talent) 챌린지 캠프 시즌3 교육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K-ICT NET 챌린지 캠프의 첫 단계로서, 대학(원)생 및 중소·벤처 기업 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가하였으며 아이디어 지원에 있어 보다 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K-ICT NET(New Entrepreneur Talent) 챌린지 캠프 시즌3'는 교육세미나 · 아이디어 접수 및 선정 · 아이디어 개발지원 · 최종평가 및 시상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아이디어평가를 통해 선정된 챌린지리그(학생팀) 15팀에 대해서는 각 300만원의 개발비를, 챔피언스리그(기업팀) 4팀에 대해서는 각 1억 원의 실증비를 지원하고, 이들은 약 4~5개월간 KOREN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연구개발하면서 상용화 검증을 수행하게 되고 통신3사 및 ETRI, 관련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시즌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학생의 경우 캠프 참가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약80%로 상당수의 학생이 취업 시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경우 지난해 지원받은 3개 팀 중 한 기업은 현재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있으며 16년도 매출이 10억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KOREN을 통해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이디어가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를 통해 국내 ICT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ICT NET 챌린지 캠프 시즌3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KOREN 홈페이지(www.kore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IA News

한국정보화진흥원, 르완다와 '스마트 아프리카'추진

우리원은 르완다의 IT부처인 청년ICT부(MYICT · 장관 Jean Philbert Nsengimana 장 필버트 응생기마나)와 6월 2일 르완다 키갈리 세레나 호텔에서 ICT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는 '스마트 르완다'를 추진할 핵심 기구로 6월 설립 예정인 르완다정보화진흥원(RISA)과 협력, 올해 중으로 르완다 국립대학교에 제2의 정보접근센터(IAC) 구축, 월드IT봉사단 파견 등 NIA가 수행하는 글로벌 협력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축사를 통해 르완다 ICT 발전지수가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청년ICT부(MYICT)와 동반자적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ICT 기반의 지식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스마트 르완다'추진에 NIA가 가진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르완다와의 ICT 협력은 지난해 11월 NIA가 개최한 '글로벌ICT포럼'에 르완다 청년ICT부 장관이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NIA는 이러한 경험을 모범사례로 삼아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MOU 체결을 축하하는 『한-르완다 ICT협력 세미나』에는 박용민 주 르완다 한국대사를 비롯해 르완다-한국 합작회사인 AoS(KT), 포스코 ICT, 한국정보인증 등 4개 국내 IT기업 관계자와 르완다 고위공무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NIA News

대구 이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년 신입사원 채용 및 사회공헌 활동 진행

우리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2016년 정규직 공개채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학교명, 학점, 가족사항 등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스펙사항 기재란을 없애고, 채용분야별 직무 설명자료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 활동, 경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실무사항을 위주로 채용을 진행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 한 것



이에 청년인턴 27명과 계약직 10명 등 총 37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이들 중 청년인턴의 경우 6개월간의 인턴기간 근무 평가를 통해 최소 7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들은 3일간 기본직무 교육을 수행하고, 지역기여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일 대구 동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조리 및 음식 포장 봉사를 실시하는 등 약 10개 가정을 위한 식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신입사원 사회공헌 활동을 정례화 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 및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이번 채용에 대구·경북지역 출신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힘을 예정이다"고 전했습니다.



NIA News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년 빅데이터 시범 사업 착수

우리원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 사회를 앞당길 핵심자원이자 서비스로 주목받는 빅데이터의 확산을 위한 2016년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선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3월부터 실시한 공모에 22개 컨소시움이 제안을 하여 선도시범 부문의 4개과제와 산업확산부문의 2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구분	주 관 기 관 / 참 여 기 관	과 제 명
선 도 시 범	KT/질병관리본부	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 서비스
	더블유쇼핑/한동대	빅데이터 딥러닝 기술 활용 스마트 T-커머스 서비스 개발
	매일유업/한국그린비즈니스협회	유가공 업종 제조 생산 ·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유라/충북대학교 등	딥러닝 기술 기반의 대용량 제조 데이터 분석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산 업 확 산	ING생명/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빅데이터 전략모델 개발 및 확산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제조업 빅데이터 전략모델 개발 및 실증

선도시범사업으로는 지능정보를 비롯한 빅데이터 신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확산 사업으로는 대외적으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금융과 제조 산업내 핵심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서울시의 심야버스 노선 정책 지원과 같은 우수 빅데이터 사례를 발굴 · 확산 시켜 온 사업으로, 올해는 특히 딥러닝,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빅데이터 모델이 구현되어 융합 신산업을 선도해 나아갈 것”으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NIA News

'16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본격 착수

우리원은 5월 30일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 10층에서 '2016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요조사 공모를 통하여 접수된 약 54개 후보과제를 심층 검토하여 사업 성격의 부합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된 11개 과제(122억)로 최종 심의를 마치고 5월부터 조달 발주를 통해 본격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웨어러블 등 첨단 ICT 신기술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선도 적용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무분야의 스마트고지와 핀테크 기반의 지능형 세정서비스, 법률분야의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서비스, 농업분야의 스마트 영농교육 및 지능형 상담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지능 정보사회 조기진입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IoT, 비콘 기반의 개방형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기반의 화재위험도 예측시스템 구축, 웨어러블 기반으로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기술 수요 창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NIA News

한국정보화진흥원, 다문화가정 방문해 3개월간 정보화 교육 실시

우리원은 정보취약 계층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9개 권역에서 방문 정보화교육을 실시합니다.

최우선 교육 대상자는 입국 5년 미만인면서 가정환경, 육아 등으로 인해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결혼이민자이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몽골어와 같은 5개 국어로 번역된 다국어교재를 제공합니다.

다문화 IT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9개 권역(서울·경기·인천·부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결혼이민자는 국민정보화교육홈페이지(www.itstudy.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정보화교육 강사는 결혼이민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에서 온 51명의 결혼이민자들이며, IT 능력평가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결혼이민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수준과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한 후 3개월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과제물을 점검하게 됩니다.

한편, 다문화 IT 방문교육을 통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300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IT 교육을 수료한 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이 취업, 창업, 사회활동 등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 권미수 본부장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와 정보화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형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며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앞으로 정보소외계층의 IT교육을 확대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NIA News

한국정보화진흥원, 농정원과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분야 업무협약 체결

우리원과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계층간 정보화격차해소의 일환으로 농어업인 정보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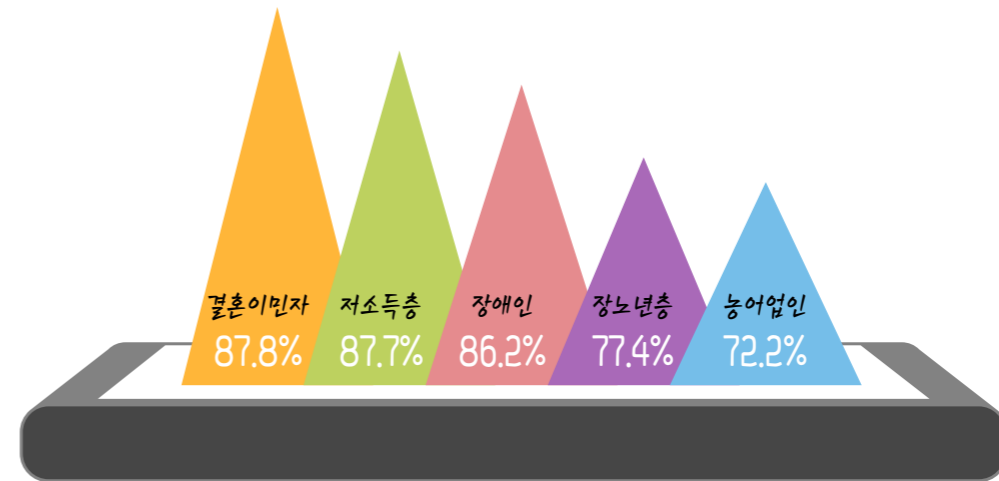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협약식은 25일 농정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협약식에는 NIA 권미수 디지털문화본부장 및 농정원 방동서 정보화사업본부장 등 관련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연간 10,000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기초과정 및 SNS활용 과정 등 농어업인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일반국민대비 농어업인의 정보화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어업인 정보역량 제고를 통한 계층 간 정보화격차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며 정보화에 대한 농어업인의 인식 제고를 위해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권미수 디지털문화본부장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농어업인 정보화교육분야 협약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농어업인 대상의 정보화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 기관의 협력모델이 농어업인 정보역량강화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2015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NIA, 2016.4)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수준

ICT 보고서



한국 정보화진 흥원

[BigData BiMonthly 제20호]
Global Bigdata 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 전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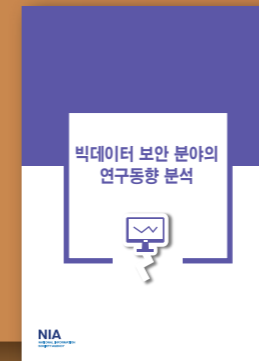
[BigData BiMonthly 제21호]
2016 Top 10
Hot Bigdata Technologies 등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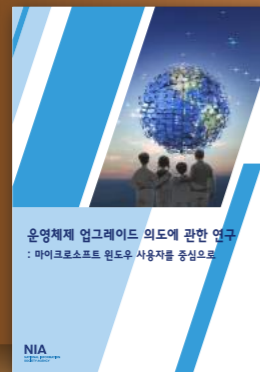
빅데이터 보안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호 현황
및 인식의 변화 분석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의도에 관한 연구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사용자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신뢰 연구와 시사점
: EU FP7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전자정부 이슈매거진
: D.gov (2016-제5호)



전자정부 글로벌 뉴스레터
: D.gov Share (Vol.03 No.01)



전자정부 해외 동향분석 서비스
: D.gov Edge (2016-5월호)



ICT 인사이드 _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ICT 인사이트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1.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일상화

ICT 인사이트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스마트폰 이용률 / 이용시간(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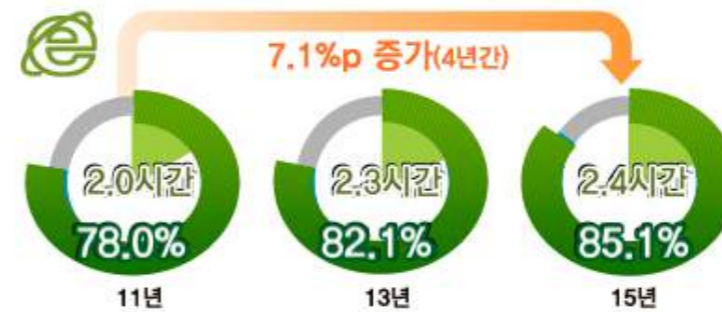
스마트폰 이용률 / 이용시간(일평균)



인터넷 이용률 / 이용시간(일평균)



인터넷 이용률 / 이용시간(일평균)



ICT 인사이트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용도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시간



과의존위험군 **고위험 사용자군***

* 습관적으로 사용하고(내성), 사용하지 않고 견디기 힘들며(금단),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임



과의존위험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 내성, 금단, 일상생활 장애 중 1~2개 증상을 보임



ICT 인사이트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2. 스마트폰과 인터넷 과의존 원인

ICT 인사이트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ICT 인사이트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3. 건강한 스마트사회를 위한 중장기 전략체계

ICT 인사이트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ICT 인사이트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4. 4대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WISE 전략-

ICT 인사이트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스마트폰·인터넷 바른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2018) (전략별 주요계획 요약)

바른사용 [WISE]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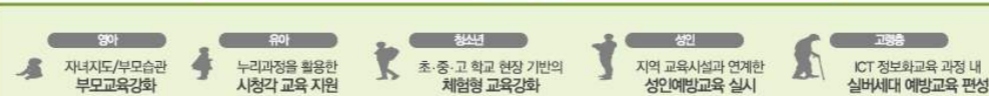
W

Wholesome Prevention
자율적 조절능력 강화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확대

자율조절 능력 강화

균형적 사용습관 형성



영아
자녀지도/부모습관
부모교육강화

유아
누리과정중 활용한
시청각 교육 지원

청소년
초·중·고 학교 현장 기반의
체험형 교육강화

성인
지역 교육시설과 연계한
성인예방교육 실시

고령층
ICT 정보화교육 과정 내
실버세대 예방교육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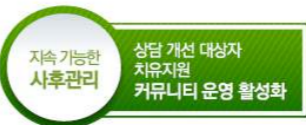
예방교육 의무화 강화

'균형과 조절 통한 바른사용 교육'으로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개편

I

Integral Recovery
과외존
치유서비스
안정화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안정된 치유서비스 제공



고도화된
상담서비스

진료적성 상담,
상담이력관리 등
상담내용 질적 강화

의료 연계된
치료 지원

공존질환* 검사 및
치료 협력병원 연계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상담 개선 대상자
치유지원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 우울, 불안 등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위험 동반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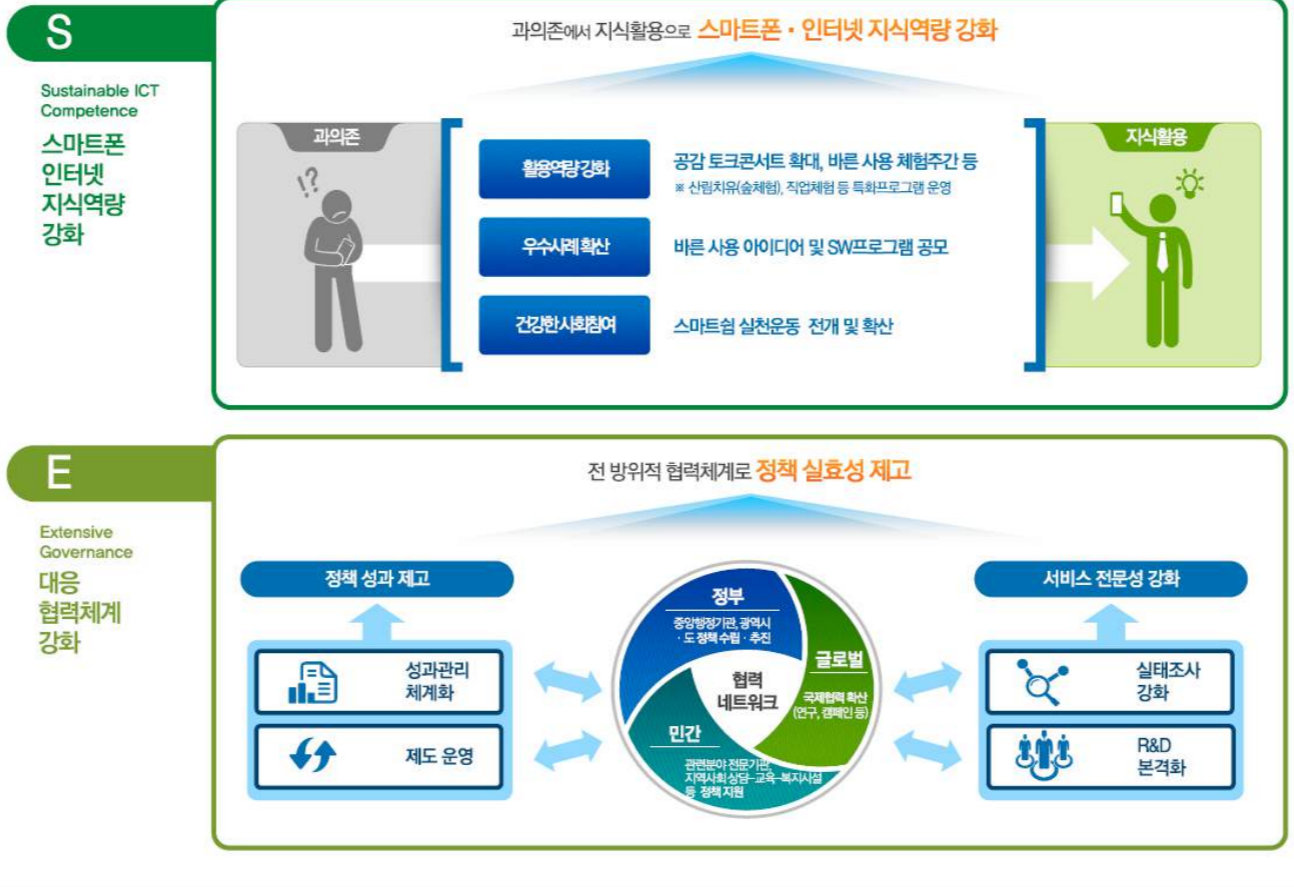
상담과정 개설 컨설팅, 상담(교사) 연수 강화 등 상담·치유 전문인력 양성

ICT 인사이트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스마트폰·인터넷 바른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2018) (전략별 주요계획 요약)

바른사용 [WISE] 전략



ICT 인사이트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W : Wholesome prevention, 자율적 조절능력 강화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확대**

자율조절 능력 강화

균형적 사용습관 형성



영아

재치지도 /부모습관
부모교육
강화



유아

누리과정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
지원



청소년

초·중·고 학교
현장 기반의
체험형 교육
강화



성인

지역 교육시설과
연계한
성인예방교육
실시



고령층

ICT 정보화교육
과정 내
실버세대
예방교육 편성

예방교육 의무화 강화

※ '균형과 조절 통한 바른사용 교육' 으로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개편

ICT 인사이트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I : Integral Recovery, 과의존 치유서비스 안정화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안정된 치유서비스 제공**



ICT 인사이트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S : Sustainable ICT Competence, 스마트폰·인터넷 지식역량 강화

과의존에서 지식활용으로 스마트폰·인터넷 지식역량 강화



ICT 인사이트

제3차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E : Extensive Governance, 협력체계 및 기반 조성

전 방위적 협력체계로 **정책 실효성 제고**



ICT 인사이트 _정보화 트렌드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꿀팁 2탄



정보화 트렌드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꿀팁 2탄

• 국가정보화백서 •

한국정보화진흥원 황현주 연구원

빠르게 진화하는 정보통신분야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과거 정보통신분야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화 트렌드 리더> 꿀팁 2탄으로 소개해 드릴 보고서는 국내 정보통신 분야의 족적(足跡)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화 백서'입니다. <정보화 트렌드 리더> 꿀팁 1탄 'NEAR & FUTURE'편에서 매주 이머징 이슈와 정보화 트렌드를 살펴보았다면 '국가정보화백서'에서는 국내 정보통신분야의 전체적인 변화상과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화 트렌드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꿀팁 2탄 '국가정보화 백서'



'백서(白書, white paper)'란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등의 각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로서 정보화 분야 보고서인 '국가정보화백서' 외에도 정부 각 부처에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림1 2015 국가정보화백서> 예를 들면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백서, 노동문제에 관한 것은 노동백서 등이 발간되고 있습니다.¹⁾

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하는 '국가정보화 백서'는 일반인들이 국가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사료(史料)로서 1993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1) 네이버 어학사전 및 지식백과 부분 인용

ICT 인사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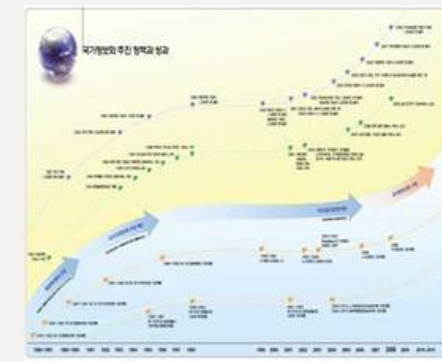
정보화 트렌드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꿀팁 2탄

국가정보화 백서에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추진 현황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의 정보화 분야 주요 이슈 및 트렌드를 파악·분석하여 향후 국가정보화의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정보화 백서는 일반 국민 또는 ICT 종사자 등이 학술 연구나 사업 계획 수립 등에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이슈, 트렌드 분석을 포함할 뿐 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전망, 예측 등을 통한 향후 정책 방향 등의 주관적인 의견 또한 포함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별 당해 연도 추진한 정보화 관련 실적을 보고할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작성되는 연차보고서와는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 가능합니다. 교육신청은 6월 15일(수)에 마감되며,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림2 2015 국가정보화백서 中 정보화 현황 데이터〉



〈그림3 2009 국가정보화백서 中 국가정보화 추진 정책과 성과〉

연도	주요 정책	주요 성과
1998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 설립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 설립
1999	국가정보화추진계획 수립	국가정보화추진계획 수립
2000	국가정보화추진계획 1차 시행	국가정보화추진계획 1차 시행
2001	국가정보화추진계획 2차 시행	국가정보화추진계획 2차 시행

〈그림3 2008 국가정보화백서 中 국가정보화 연혁 (1998-2001)〉

연도	주요 정책	주요 성과
1999	국가정보화추진계획 1차 시행	국가정보화추진계획 1차 시행
2000	국가정보화추진계획 2차 시행	국가정보화추진계획 2차 시행
2001	국가정보화추진계획 3차 시행	국가정보화추진계획 3차 시행
2002	국가정보화추진계획 4차 시행	국가정보화추진계획 4차 시행
2003	국가정보화추진계획 5차 시행	국가정보화추진계획 5차 시행
2004	국가정보화추진계획 6차 시행	국가정보화추진계획 6차 시행
2005	국가정보화추진계획 7차 시행	국가정보화추진계획 7차 시행
2006	국가정보화추진계획 8차 시행	국가정보화추진계획 8차 시행
2007	국가정보화추진계획 9차 시행	국가정보화추진계획 9차 시행
2008	국가정보화추진계획 10차 시행	국가정보화추진계획 10차 시행

〈그림5 2008 국가정보화백서 中 국가정보화 연혁 (2001-2008)〉

ICT 인사이드

정보화 트렌드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꿀팁 2탄

‘국가정보화 백서’는 당해의 분야별 정보화 현황, 추진실적, 성과, 데이터 등 정보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추진경위, 연혁 등을 담고 있어 국가 정보화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에게 국가 정보화에 대한 역사와 추진경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입문서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백서’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을 담당자(한국정보화진흥원 문재형 수석)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1.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하는 국가정보화백서는 언제 발간되었으며, 발간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정보화 백서는 일반인들을 위해 국가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사료(史料)로서 1993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을 위한 국문 버전의 백서는 11월에, 해외 이용자를 위한 영문 버전은 12월에 책자와 전자파일(e-book, PDF 파일) 형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 국가정보화 백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간되나요?

발간 과정은 우선 편찬위원회를 통해 백서의 집필 방향과 구성 내용을 확정하고 목차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을 선별하여 작성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 집필을 의뢰합니다.

원고가 취합되면 원고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윤문 등 수정 과정을 거쳐 가제본을 제작하고 집필진과 편찬위원회를 통해 발간 방향의 부합성, 내용의 정확성 등에 대한 감수(2~3회)를 거쳐 11월에 발간하게 됩니다. 영문 버전은 2차 가제본 감수 시점부터 번역, 편집 등을 거쳐 12월 발간합니다.

3. 국가정보화 백서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가정보화 백서는 당해의 분야별 정보화 현황, 추진실적, 성과, 데이터 등 정보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추진경과, 연혁 등을 담고 있어 국가 정보화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은 국가 정보화에 대한 역사와 추진경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입문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ICT 관련자들에게는 정보화 분야의 이슈와

ICT 인사이트

정보화 트렌드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꿀팁 2탄

트렌드 등을 제시하여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제공함으로써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도움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 2016년도 국가정보화 백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 하시나요?

2016년은 지능정보사회의 원년인 만큼 지능정보사회를 뒷받침하는 기술과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능정보사회의 추진 배경과 개념·범위·요소기술 등의 정의, 주요국에서의 정책 현황과 기술 동향 및 수준, 미래 지능정보사회로 인해 변화되는 모습의 예측과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관련 기술들의 활용 전략 및 정책 과제 및 제언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이번(2016년) 국가정보화백서에 담아볼 예정입니다.

5. 국가정보화백서 발간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가정보화 백서는 覽년부터 시작되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명성을 쌓아온 중요 발간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명성은 새롭게 부각되는 새로운 이슈나 트렌드를 선정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백서를 구성□기획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가정보화 백서에는 이러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담을 예정이니 앞으로도 국가정보화 백서에 대한 많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ICT 인사이드 _상상을 현실로, 좋은 정부를 위한 ICT



상상을 현실로. 좋은 정부를 위한 ICT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신에 등장

좋은 정부는 무엇일까. 작년 11월 SBS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좋은 정부의 조건은 효율성보다는 정책 역량(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정부로 정의하였다. 본고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책 역량 차원에서 좋은 정부를 얘기하고자 한다. 그럼 정부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가 정부의 정책 역량을 높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아닐까?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ICT

2011년 방송을 시작한 미국 인기드라마 Person of Interest, 올해 5월부터 시즌5가 시작 되었다. 이 드라마는 감시를 통해 미래의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이야기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테러 감시를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데, 이중에 테러가 아닌 일반 범죄에 관한 데이터들은 무시하고 폐기시킨다. 기계 개발자 핀치는 전직 CIA요원 리스와 함께 앞으로 일어날 예측된 범죄의 무고한 피해자를 막는 것이 주요 스토리이다. 이와 유사한 스토리로 톰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영화에서도 범죄를 예측하고 사전에 막는 예방범죄국과 프리크라임시스템이 나온다.

이처럼 드라마와 영화의 상상의 소재가 현실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LA경찰청은 수년간 범죄 발생 위치, 시간, 날씨 등의 범죄 데이터와 유동인구, CCTV, 유흥업소, 경찰서와의 거리, 전과자 거주 현황 등 변수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순찰 등 치안 관리를 강화하여 한해 범죄 발생률을 25% 감소시켰다.

또한,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국으로 뜨거운 이슈가 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는 'AI', 'HER'등의 영화와 같이 공상과학 영화의 중요 테마였다. 컴퓨터 및 IT기업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빅데이터

ICT 인사이트

상상을 현실로. 좋은 정부를 위한 ICT

및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였다. 대표적으로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인 '왓슨'은 2011년 미국 퀴즈쇼 프로그램인 제퍼디쇼에서 가장 오랫동안 승리한 우승자 및 가장 높은 점수로 우승한 우승자와의 왕중왕전에서 승리를 하였다. 특히 '왓슨'은 1초에 80조 번에 이르는 연산능력과 책 100만 권 분량 이상의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으며, 미국 의사자격증에 도전중이며 최근에는 TV-영화-신문 등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에 나오는 베이맥스는 환자의 몸을 스캐닝 하고 적절한 치료와 치료법을 제안한다.

2003년 출판된 베르나르베르베르의 단편집 '나무'에 수록된 한 편인 '내게 너무 편한 세상'에는 시계·실내화·주방기구·의자·포크·TV·프라이팬·세탁기·스팀다리미·커피머신, 심지어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스스로 작동하고 주인공의 시중을 드는 모습은 지금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세상을 상상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무인자동차, 무인비행기, 가상현실, 웨어러블 장치 등 영화 속 상상의 기술이 실용화 단계로 현실화되고 있다.



ICT는 모든 영역의 변화도구

ICT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행정, 금융, 제조, 문화, 유통, 교통 등 전 분야에 적용되어 스마트하고 편리한 변화를 일으켜 왔다. 사람이 수기로 하던 일들을 전산화, 자동화하면서 효율화를 추구하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예측과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ICT 활용과 변화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ICT 인사이트

상상을 현실로. 좋은 정부를 위한 ICT

있는 인터넷 뱅킹에서부터 모바일 뱅킹, 모바일 결제 그리고 모든 은행업무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은행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고 있다.

제조 분야에서도 공장자동화에 이어 최근에는 IoT,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융합한 인더스트리 4.0이 시작되었다. IoT를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 한다. 공장자동화는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시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했지만 인더스트리 4.0에서 생산설비는 제품과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작업 방식을 결정한다. 즉, 지금까지는 생산설비가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의 통제를 받았지만 인더스트리 4.0에서는 각 기기가 개별 공정에 알맞은 것을 판단해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유통 분야에서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무의미해 지면서 O2O, 멀티채널, 옴니채널 등의 전략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각 되었고, 소비자층의 변화와 소비패턴의 다양화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공공에서도 전자정부, 국가정보화라는 이름으로 ICT를 행정업무와 서비스, 정책에 적용하여 왔다. 정부의 업무와 민원 신청이나 신고 등의 서류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행정수속이나 행정처리가 인터넷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였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대국민 민원업무 관련 사업(G4C), 조달청의 G2B시스템,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HTS) 등이 있다.



ICT 인사이트

상상을 현실로. 좋은 정부를 위한 ICT

좋은 정부를 위한 ICT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 생활속에 밀접하게 자리잡은 ICT,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좋은 정부를 위하여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할까?

최근 ICT는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의 빠른 발전으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작동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을 현실화 하고 있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의 화두도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다루었다. 제조업부터 의료·금융까지의 전 산업과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이 접목돼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정부도 그간의 전자정부 및 정보화를 지능정보사회에 걸맞게 지능형 정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국민 중심의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한 국정 아젠다로 '정부3.0'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의 구현을 추진 한다. '서비스 정부'는 국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원스톱·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유능한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추구한다. 또한 투명한 정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적극 개방·공유 하고 활용을 지원한다.

'정부3.0'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ICT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병원, 카드사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정부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서류만으로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처리 가능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안심상속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ICT 인사이드

상상을 현실로. 좋은 정부를 위한 ICT

이러한 좋은 정부를 위한 ICT 활용을 위하여 최근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함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 집행 비리를 분석하는 모델을 만들고 이를 타 지자체 등에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과 사용량, 수도사업소의 전기요금과 사용량, 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통계청은 그동안 전수 및 방문조사를 통해 수행했던 국민인구총조사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등록센서스로 바꾸는 것을 발표하였다. 주민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자료를 표준화하고 분석하여 기본 센서스 데이터로 활용하고 표본 가구 20%만을 대상으로 심층 방문 조사함으로써 통계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02년부터 '14년까지의 국내 식중독 발생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시설·원인균 등 사전예측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외식업중앙회 등 관계기관 등과 공유해 특별 지도·점검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제 좋은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더욱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역량을 높여야 한다.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AI 등 첨단 ICT를 정부 업무와 서비스 전반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융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메르스와 같은 보건·의료 영역과 범죄 및 재난관리 분야, 교통, 시설관리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변화와 혁신 등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복잡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력과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이는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로 이어진다. 이것이 좋은 정부를 위한 ICT 활용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이미지 출처]

<http://comicrelated.com/news/19805/person-of-interest>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024614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y2166&logNo=220245979786>

ICT 인사이드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한국정보화진흥원 박지혜 주임연구원

일상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윤희유, '공공데이터'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된 오늘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 속에서 '정보'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외출하기 전 지역별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우산을 챙길 수 있고, 내가 타야하는 버스의 도착정보를 미리 체크한다면, 더운 여름날 오랜 시간동안 버스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스마트폰 안에 존재하는 기상정보 앱, 교통정보 앱은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

세계 각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자료, 즉 정보를 '공공데이터'라고 칭한다. 앞서 예를 든 기상정보 및 버스도착정보가 바로 기상청과 국토부의 공공데이터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법률'을 시행하며, 본격적으로 데이터 개방 정책 활동이 추진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3.0'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과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 빅데이터를 개방하며 의료보험 정책 등과 관련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여러 종의 공공데이터 역시 적극 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세계 속에 현대 대한민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ICT 인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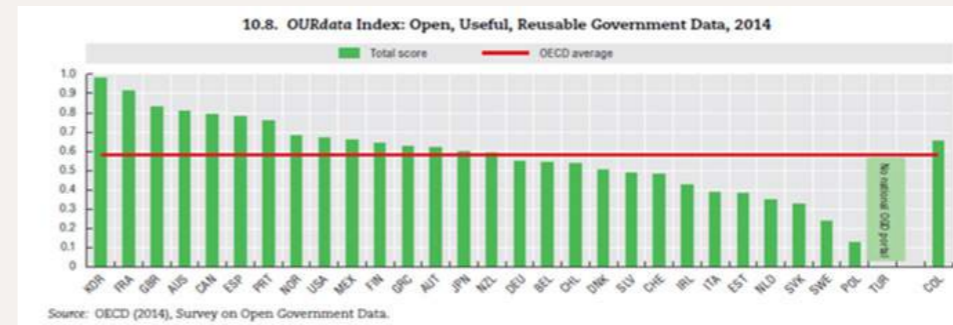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OECD, 공공데이터개방 지수(OUR Data Index)

지난 2015년 7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년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5)'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Open, Useful, Re-Usable) Data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하였다.

* OECD : 경제사회발전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정책 연구, 협력 기구

공공데이터개방 지수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해 각 나라 정부의 노력을 진단한 것이다. 진단항목은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총 3개 항목 1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15년 기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공공데이터를 균형적으로 제공하고, 국민 접근성을 증진시켜 데이터 활용을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한국은 전체 평균치인 0.58점에 크게 웃도는 0.98점(1점 만점)을 기록하며, 세계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데이터 분야 OECD 리더 국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



[그래프 설명] 대한민국 1위에 이어, 프랑스 2위, 영국 3위, 미국이 9위 차지했으며, 조사 대상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일한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은 14위인 0.56점으로 OECD 평균과 근접한 수준

*출처: 2015년 정부백서 발췌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15_gov_glance-2015-en;jsessionid=1asr811jcl195.x-oecd-live-02

월드와이드웹재단, Open Data Barometer(ODB)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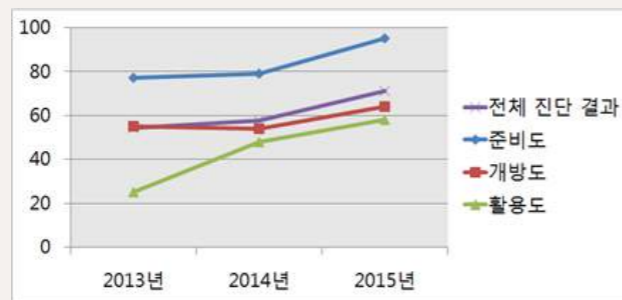
정부 측 공공데이터 진단에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가 있다면, 민간의 대표적 진단 사례로는 Open Data Barometer(ODB)를 들 수 있다. ODB는 팀 버너스 리가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 월드와이드웹(WWW)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5년 진단에서 우리나라는 92개 평가 대상국 중 전체 8위, 10위 권 내 진입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16.4.21. 발표)

ICT 인사이트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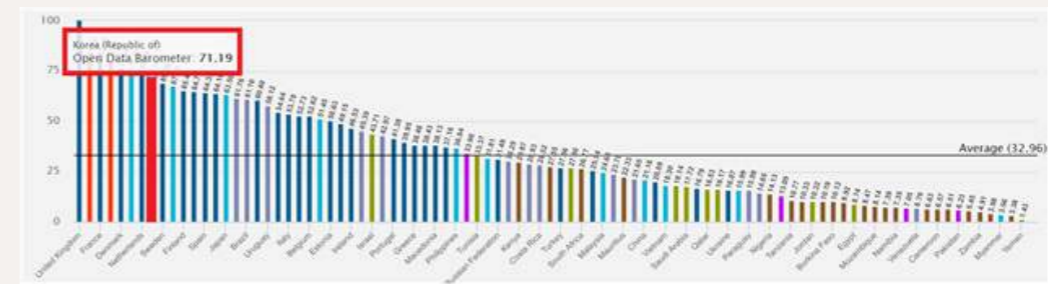
OECD, 공공데이터개방 지수(OUR Data Index)

ODB는 '13년 처음 평가를 시작했으며, '13년 77개국 → '14년 86개국 → '15년 92개국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였다. 진단 항목은 준비도, 개방도, 활용도 총 3개 분야 35개 항목이다. '15년 ODB 진단에서는 영국이 10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미국(81.89점, 2위), 프랑스(81.64점, 3위), 일본(63.50점, 15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4년 평가에서 57.65점으로 17위에 그쳤으나, 이번에 총점 71.19점으로 8위를 차지, 1년 사이 아홉 계단이나 상승했다.



연도별 ODB 결과	'13년	'14년	'15년
한 국	12위/77개국(54.2점)	17위/86개국(57.6)	8위/92개국(71.19)

[그래프 설명] '15년 ODB 진단 결과, 준비도, 개방도, 활용도 모든 진단 분야에서 10점 이상 상승



[그래프 설명] '15년 진단 순위, 1위 영국(100점), 2위 미국(81.89점), 3위 프랑스(81.65), 13위 일본(63.50) 등

*출처: 2015년 ODB 3rd Edition 글로벌 리포트 발췌
<http://opendatabarometer.org/3rdEdition/report/>

한국은 진단 항목 중 특히 준비도 분야에서 높은 점수('14년 57.5점 → '15년 95점, 4위)를 받았다. 준비도는 각 나라의 공공데이터 정책 및 전략 지원 수준을 평가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중앙 및 지자체 데이터 개방을 위한 법제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며 적극적으로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다만, 다른 분야에 비해 활용도 부분에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14년 48점 → '15년 58점). 활용도란, 공공데이터 개방이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에

ICT 인사이트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눈에 띄는 효과를 진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파급효과가 있음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사례 연구, 조사 활동 등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상 두 가지 이유가 활용도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일까.

우리 정부는 올해 4월 개정된 공공데이터법률에 따라,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데이터 개방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액 또는 인력 고용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연구 과제 등이 추진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이 일반 국민들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많이 인지하고, 그로 인하여 활발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본다.

공공데이터로 꿈(Dream)을 디자인(Design)하는, NIA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13년 10월 공공데이터법의 제 13조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 내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동 센터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의 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전담 지원하는 조직이다. 센터 구성원들은 공공데이터의 생성, 개방, 활용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공공과 민간의 접촉점에서 공공데이터의 양적·질적 개방 확대 및 민간의 창의적 활용을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CT 인사이트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본 센터는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창업지원 공간인 오픈스퀘어-D(서울 용산)를 운영 중이다. 오픈스퀘어-D는 공공데이터 활용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업 공간', 창업인들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입주 공간',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기를 사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 공간'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사용은 무료로 제공 중이다.

한편 활용지원센터는 매년 공공데이터에 관련된 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행정자치부 주최)'를 주관하고 있다. 3년째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레드테이블', '버드뷰', '텐핑거스', '구니스', '앞집'과 같은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거나, 또는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전략을 수립 하고 있다.



〈오픈스퀘어-D 로고〉



〈오픈스퀘어-D 개소식 당시
원장님 인사말씀〉



〈2015년 제3회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15.11.2)〉



〈오픈스퀘어-D 입주기업 대상
Connexion Day 모습〉



〈디자인씽킹 세미나 개최 모습〉

*사진제공: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활용팀

이 밖에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데이터의 질적 개방을 위해 민간·유사 중복 서비스 정비, 데이터 품질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부터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커뮤니티-Korea Open Data(KOD) 500'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Open Data 500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것이다.

ICT 인사이트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동 사업은 미국, 호주, 멕시코 등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각 나라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을 발굴하고, 분석·연구, 관리하는 프로젝트이다. 한국은 작년 말까지 국내 활용 기업 300개를 발굴하는 것에 이어, 올해 말까지 200개 기업을 추가 발굴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추후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위하여 Roundtable 및 전시·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업 지원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의 **新**행정 한류를 위하여!

공공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라 불리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관련전문가들 역시 공공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신사업을 창출하고, 창조경제 혁신을 불러일으킬 원동력이라는 것을 자명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수준을 진단하는 국제 평가에서 여러 선진국 사이, 당당하게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국'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현 정부의 노력과 정책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앞으로도 NIA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데이터 개방을 원하는 국민의 열성적인 요청에 힘입어,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가 향후 **新**행정 한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ICT 인사이트_행정서비스 통합제공으로 국민중심 서비스를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으로 국민중심 서비스를

한국정보학진흥원 **최 고** 주임연구원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출처 : 행정자치부(2015.9월)) 응답자의 71%가 한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3.0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대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식으로 인해 국민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부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12,988개('14년 말 기준)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일일이 검색해야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하다.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번거롭게 요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곳만 방문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구현해야 할 시점이다.

[용어정리] 행정 서비스란?

- ▶ 행정기관 등이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전자민원처리서비스 및 수혜적 서비스와 정책정보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편의 제공활동으로 정의
- 전자민원처리서비스 :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수행하여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수혜적 서비스 :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생활비, 연금 등 재화 지급, 무료 교육 등 비용 면제, 요금 감면서비스 등 혜택을 주는 서비스
- 정책정보서비스 : 단순 행정정보 제공, 신청(신고, 접수, 인증 등)받는 업무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내지 의무사항 등

“하나의 정부(One-Government)”...영국, 캐나다 등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기관별 혼재된 서비스를 “하나의 정부(One-Government)” 즉 국민이 접근하는 채널을 통합하여 한 곳 또는 전문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수상실 주도로 개별기관 사이트 없이 2,000여개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단일 도메인으로 통합한 하나의 정부포털에서 서비스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개별 사이트는 유지하고 전자정부포털을 통해 생활주제 중심의 분류체계로 서비스를

ICT 인사이트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으로 국민중심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 혜택정보는 별도의 전문포털(Benefit.gov)에서 제공한다. 캐나다 역시 '13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1,500여개 개별부서의 웹사이트를 하나로 통합(canada.ca)하고 있으며, 생애이벤트별 수요자 및 주제별 서비스는 전문포털(Servicecanada.gc.ca)에서 제공하고 있다.

제공해주며, 서비스 또한 단절 없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행정서비스 한 곳서 해결”...올해 행정자치부내 정부포털, 알력드림e, 민원24 통합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처리·결과확인이 한 번에 가능한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15년에는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BPR/ISP 수립’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행자부 소관 3개 시스템(정부포털, 맞춤형 혜택안내, 민원24) 이를 통합하고, 복지·노동·교육 등 국민 중심 생활서비스 제공시스템 10개를 선정하여 시범 연계한다. 내년부터는 국가보훈처 등 외부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원스톱·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영국	• 2,000여개 사이트 단일 도메인 통합추진 • 연간 520억 경제적 가치 발생	통합형 부분 통합형
	미국	• Topic 중심 서비스 안내 • 개인 혜택정보 Benefit.gov에서 제공	
	호주	• 안내 채널 통합, 신청처리 타 사이트 링크 • 회원기반 8개 분야 맞춤 서비스 추진	
	캐나다	• 1,500개 포털 통합 및 제공 사이트 각각 연계 • 방문자 2배 증가 (모바일 150% 증가)	
	싱가포르	• 400여개 기관 사이트를 4개(대민, 기업, 외국인, 정부) 국가포털로 통합	

〈주요 국가의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방향〉

*출처 :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플랫폼 구축 전략(2015.12,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에게 통합된 정보를 하나의 대표적인 채널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 고도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정보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지향한다. 다양한 영역별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맞춤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은 본인이 몰라서 요청하지 못한 서비스까지 미리 선제적으로

ICT 인사이트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으로 국민중심 서비스를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서비스 내용>



*출처 :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1차) 제안요청서(2016.4,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이 이루어지면 국민은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안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요자별 최대/최적의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중복방지 등 정부의 서비스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자치부 내 행정서비스 통합은 향후 범정부 차원의 부처 간 대국민 서비스 연계/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은 하나의 부처에서 추진하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각 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 기관간 칸막이 없는 협력·협업체계의 운영방안 및 근거 마련과 더불어 범정부 통합 행정서비스 혁신 및 지속적 확대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행정서비스 통합을 통해 국민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정부3.0이 구현되길 기대해본다.



포토 앨범 **_2016년도 신입직원 사회공헌 활동**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한-코소보 ICT 협력 세미나 (서울사무소)	2 ▶ [6.2~3] 한-르완다 MOU 체결 및 세미나 (르완다) ▶ '16년도 신입직원 사회공헌 활동(동촌종합사회복지관) ▶ 표준프레임워크 최신버전(V35.1) 및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포스트타워)	3	4
5	6	7	8 ▶ 제29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9 ▶ 대구이전 공공기관 공동 사회공헌활동 (대구안심종합사회복지관)	10	11
12	13	14	15	16	17 ▶ [6.17~18] 「인터넷·게임 Detox사업」 워크숍 개최	18 ▶ 감리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한양공고)
19 ▶ [6.19~22]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홍보부스 운영	20	21 ▶ 정부3.0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코엑스)	22	23 ▶ [6.23~24] 전국 교육청 장학사, 교장 대상 인터넷윤리 리더십 연수 과정 운영	24 ▶ '15년도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추진기관 성과발표회 (서울 뉴국제호텔)	25
26	27	28 ▶ 매여마을 일손돕기 방문봉사 (매여마을) ▶ '16년 상반기 전자정부본부 소관 사업 통합 중간보고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본원)	29 ▶ 개방형 홈IoT 협의체 발대식 (코엑스)	30 ▶ 「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 지역협력세미나 개최(서울)		

디지털통 다시보기

2013

11월
NOV

12월
DEC

2014

1월
JAN

2월
FEB

3월
MAR

4월
APR

5월
MAY

6월
JUN

7월
JUL

8월
AUG

9월
SEP

10월
OCT

11월
NOV

12월
DEC

2015

1월
JAN

2월
FEB

3월
MAR

4월
APR

5월
MAY

6월
JUN

7월
JUL

특집호
2015년
대구제주지방이전
특집호

10월
OCT

11월
NOV

2016

1월
JAN

2·3월 통합본
FEB
& MAR

4월
APR

5월
MAY

6월
JUN

* NIA 뉴스레터 디지털 통(通)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www.nia.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